허가취소 양과동 폐기물시설 行訴서 뒤집히나

업자측 "사업 재개" 국내 굴지 로펌 동원 …남구청은 소극대처 주민들 격분

광주시가 감사에 나선 끝에 허가취소돼 물의를 빚은 바 있는 광주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장 건립에 대한 남구와 업체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남구와 해당 업체, 양과동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행정부 심리로 열린 '의료폐기장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공판에서 남구와 해당업체는 소송의 쟁점인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놓고 맞섰다.

남구는 "양과동 의료폐기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물로 건축허가에 앞서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체 측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는 건축면적 1500㎡ 이하의 시설물은 도시계획을 거치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1127㎡ 규모인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의 허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해당업체는 이 소송을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에 맡겨 사업재개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남구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관련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양과동 주민들은 남구와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고 보조 참여신청까지 했지만 업체측 변호인단의 거부로 첫 변론에 참석하지 못했다.

심리를 지켜본 주민들은 남구청이 소송에 무성의하게 임하고 있다며 5월 첫주 내에 광주시와 남구청을 항의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민들은 "첫 변론에 남구청 고문변호사가 참석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가 법정에 섰다"며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계되는 중요한 사안인데 남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격분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등 건축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칫 광주시 감사까지 실시해 취소처분을 내렸던 사안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반발했다. 이어 주민들은 "조만간 광주시에 도움을 요청하고 행정소송에 적극 임해 달라며 남구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조참여 신청을 한 것도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며 "다음달 17일 예정된 변론에서는 피고 보조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남구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5·18 32주년 주요 행사

일정	행사명	장소
5월5~27일	5월 극 상설공연	민들레소극장 등
5월12~27일	5월 역사 기행 '민주올레'	5·18 주요사적지
5월12일	5월 창작 가요제	전남대운동장
5월15~18일	세계인권도시포럼	김대중컨벤션센터, 시청 등
5월16~18일	2012 광주 아시아포럼	5·18기념문화관
5월17일	추모제, 전야제	국립5·18민주묘지, 금남로 특설무대
5월18일	헌혈행사, 주먹밥나눔, 기념식	광주시 일원, 국립5·18민주묘지
	광주인권상 시상식	5·18기념문화관
5월19일	개념찬 CONCERT 바람	금남로 특설무대
	광주인권상 축하음악회	5·18기념문화관
5월20일	국민대회+시도민 한마당, 민주기사의 날	금남로 일대
5월21일	광주시민의 날	상무시민공원
5월26일	청소년문화제, 휘호대회	금남로, 국립5·18민주묘지
5월월 27일	광주시민나눔의 날, 부활제	금남로 일대

'5월의 바람아 다시 세상을 깨워라'

5·18 32주년 슬로건…5~27일 기념행사

올해 5·18민주화운동 32주년의 슬로건이 '5월의 바람아 다시 세상을 깨워라'로 결정됐다. 5·18민중항쟁32주년기념행사위원회(상임위원장 나간채·이하 행사위)는 29일 국민공모를 통해 슬로건을 이같이 선정하고,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위는 "우리사회는 민주주의 후퇴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5월 기념행사는 참여와 연대의 5월 정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0년 5월 광주의 선택이 역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광주정신과 오월정신은 역사를 관통 주길 바라며 슬로건 주제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사위는 이번 32주년을 맞아 오는 5월 5일부터 27일까지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5·18 추모 만장쓰기 5·18민중항쟁 32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29일 오후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5·18 추모 만장쓰기 행사가 열렸다. 시민들이 오월 정신을 담은 글귀를 만장에 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경찰 지능범죄수사대 순천에 동부지부 문열었다

순천에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동부지부가 문을 열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순천시 생목동 옛 왕조파출소에서 지능범죄수사대 동부지부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동부지부는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지역의 지능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등을 맡게 된다. 특히 이 지역의 공직비리와 토착비리사범 척결과 함께 대형경제범죄사범 등 기업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와 어민 등을 상대로 활동하는 불법사채업자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주 '하정웅로' 생긴다

문화예술 발전 기여 중외공원 정문에

광주시는 수차례에 걸친 미술작품 기증과 지역 청년작가 후원 등을 통해 광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재일교포 하정웅씨를 기념해 그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 '하정웅로' 명명식을 30일 개최한다.

이번에 지정된 '하정웅로'는 중외공원 정문부터 광주비엔날레관 정문까지의 공원 안 내부도로 1㎞ 구간으로,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정식도로는 아니다.

하정웅 씨는 지난 1993년 212점, 1999년 471점, 2003년 1182점, 2010년 357점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천222점의 미술작품을 광주시에 무상으로 기증했고 지역 청년작가 초대전, 하정웅컬렉션 특별전 등 예술 메세나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명예도로 지정은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비엔날레를 찾는 국내외 미술인들과 중외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하정웅씨의 숭고한 메세나 정신을 지속적으로 기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3~5살 유아부터 고교까지 인터넷중독 예방 의무교육

앞으로 3~5살 누리과정 유아부터 고교생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을 접하기 시작하는 유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형성시켜 인터넷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아동 인터넷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선인터넷과 모바일기기의 보급 확산,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유·아동의 인터넷 이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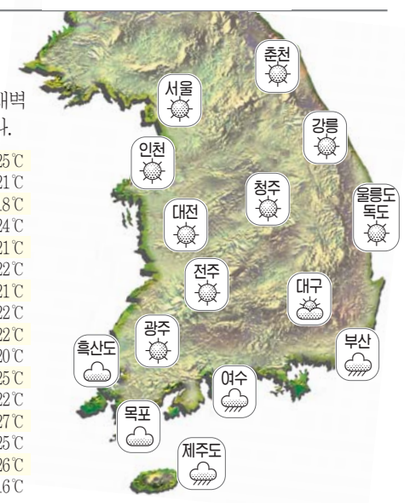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43분 해짐 19시 17분 달뜸 12시 50분 달짐 01시 31분

남해안 한때 비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에 새벽에 비가 온 뒤 점차 개겠다.

광 주	맑음	15/25℃
목 포	흐림	14/21℃
여 수	흐리고 한때 비	14/18℃
나 주	구름많음	15/24℃
완 도	흐리고 한때 비	15/21℃
구 례	구름조금	13/22℃
강 진	흐리고 한때 비	15/21℃
해 남	흐림	13/22℃
장 흥	흐리고 한때 비	15/22℃
순 천	흐리고 한때 비	14/20℃
영 광	구름조금	14/25℃
진 도	흐림	15/22℃
전 주	맑음	13/27℃
군 산	구름조금	13/25℃
남 원	구름조금	11/26℃
흑산도	흐림	11/1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먼바다	북동~동	2.0~4.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먼바다	북동~동	2.0~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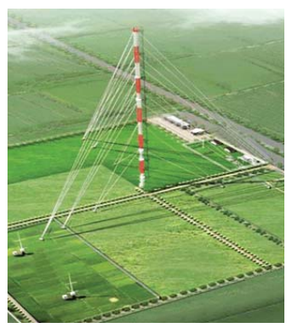
	밀물	썰물
목포	08:14 20:37	00:53 14:20
여수	03:31 16:21	09:59 22:1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1(화)	2(수)	3(목)	4(금)	5(토)	6(일)
날 씨						
최저/최고	15/24	16/21	16/22	14/25	13/24	12/24

보성에 국내 최고 307m 기상관측탑

광주기상청 2일 기공…91억들여 내년 3월 완공



전남을 세계기상관측·연구의 중심지로 이끌 국내 최고 307m 높이의 기상관측탑〈조감도〉이 보성에 들어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월2일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보성글로벌표준기상관측소에서 307.19m의 종합기상관측탑 기공식을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종합기상관측탑은 보성글로벌표준기상관측소의 핵심시설로 15만4495㎡ 부지에 모두 9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13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시설에는 온·습도, 복사, 풍향·풍속, 황사, 온실가스, 방사능 오염물질 등의 관측장비가 설치되며 높이별 기상 상황을 측정할 수 있다.

또 테스트베드로서 기상장비 성능 비교와 시험도 가능하며, 동북아지역을 대표하는 3차원 통합 관측자료 생산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보성글로벌표준기상관측소는 지난 2월 세계기상기구(WMO)로부터 독일의 리하르트 아스만, 스위스의 파예른, 핀란드의 소단큘라 등과 함께 선도관측소로 지정돼 앞으로 기후변화와 위험기상을 대비하는 통합관측 기술 개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